

## 미국의 대테러 대응

알덴 스타링 박사\*

9월 11일의 야만적인 공격에 미군이 반응하기도 전에 군사작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테러리즘의 소위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테러의 원인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군사작전과 같은 무해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의 과거 정책을 재검토하고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또는 전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무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논리는 사실 한가지 기본 오류의 여러 형태일 뿐입니다. 즉, 9월 11일 발생한 끔찍한 사건은 테러범들이 아닌 미국의 책임이라는 오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느 논리도, 어떠한 논리도 그 무시무시한 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80개국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일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자들의 죄가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범인들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이는 분명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테러범들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공범자를 추적해내는 작업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9월 11일 공격은 미국에 대한 전쟁행위였으며 우리의 대응, 즉 테러리스트와 그들을 보호하는 자들에게 선전포고한 것은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이번에 공격받은 미국 시민, 여객기, 건물 등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 가치를 침해당한 전문명세계를 대변하여 취한 조치입니다.

테러범들은 9월 11일과 같은 테러 행위를 계속 계획하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미국 등 그들의 왜곡된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국가들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는 대량살상무기를 입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테러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정치, 문화, 종교 신념을 대표하는 많은 국가들이 직접적인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선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잔학행위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은 책임자가 누구인지 입증하

---

\* 주한미국대사관 공보부참사관

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알 카이다 테러 그룹의 소행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빈 라덴을 보호하고 있음을 인정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은 부시 대통령의 군사작전에 대한 명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탈레반 정권이 여러 차례 우리의 요청과 경고를 무시한 후에야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은 의도적이고 목표물만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이슬람 종교나 신자, 특정 국가의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테러리즘과 테러 지원자이며 우리의 목표물 이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간 미국 국민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뭉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명사회에 대한 위협을 추적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일관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무를 다하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 "The U.S. Response to Terrorism"

Dr. Alden P. Stallings\*

Even before United States forces began responding to the savage attacks of September 11, we began gearing what amounted to preemptive criticisms of any conceivable military action that we might take. We must not, we were told, be distracted by the passions of the moment, but should look instead to the so-called "root causes" of terrorism—which always turned out to be something for which we were responsible. Or that we should examine our past policies, or look within ourselves, or put an end to poverty and injustice everywhere in the world, before undertaking anything so uncouth as military action.

All of these rationales for inaction are really only variations on a single basic fallacy, that it is not really the terrorists but the U. S. that is somehow to blame for the atrocity that befell us on September 11. The plain fact is that nothing—I repeat, nothing—can either justify the massacre of thousands of innocent people—not only Americans, but citizens of 80 different nations, including many Koreans—on that terrible day, or diminish the monstrous culpability of the perpetrators of this atrocity.

It may be possible to explain, as opposed to justify, the psychology of the perpetrators, in ways that may help us to better understand their perverse motives. Such explanations are primarily of value insofar as they might be useful in helping us to track down their accomplices, and we will welcome them in that spirit.

But about the main point there should be no misunderstanding: The attacks of September 11 constituted an act of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we have responded in the only appropriate manner, by declaring war on the terrorists and all those who harbor them. In doing so we have acted, not only on our own behalf, but on behalf of the entire civilized world, against whose basic values these attacks were directed, as surely as against our people, our aircraft, and our buildings.

Not only did the terrorists plan and execute these acts, and must be presumed to be planning more like them, but they are also attempting to acqui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pose a far more terrifying threat—again, not only to the United States, but to any nation that does not share their narrow and twisted values. The extent of the threat, and the need for a response, has

---

\* Deputy Public Affairs Officer

been directly acknowledged by the many nations, representing a great variety of political, cultural, and religious persuasions, including many Islamic nations, who have joined our coalition to fight terrorism.

We did not act in haste. Our first response to the atrocity was to gather evidence pointing to the perpetrators. We have very strong evidence linking the attacks to Osama bin Laden and his terrorist group al-Qa'ida, whom the Taliban regime in Afghanistan has acknowledged it is sheltering, and has refused to turn over despite very clear warnings of military action from President Bush. Only after repeated requests and warnings were ignored by the Taliban did we initiate military action in Afghanistan.

The military actions we have undertaken have been deliberate and carefully targeted. Our enemy is not Islam, nor Muslims, nor the general population of any country. Our enemy is terrorism and its supporters, and we are making every possible effort to confine the damage to them alone. But we are absolutely committed with a degree of unanimity that our nation has not seen in decades to tracking down and eliminating this threat to civilization with every means at our disposal, and we will persist until that task is completed.